

괴테의 『친화력』에 나타난 인간의 조건

- “이성자유”와 “열정적 필연성”의 긴장관계

조성희 (서울대)

국문요약

당대에 통용되던 화학 용어인 ‘선택친화성’을 소설의 제목으로 삼은 괴테는 직접 쓴 책광고문에서 이 개념을 “이성자유”와 “열정적 필연성”이라는 표현으로 풀어쓰면서 도덕성과 감각성, 의무와 경향성이라는 인간의 이중적인 조건을 강조하고 있다. 작가 자신의 이러한 해설을 출발점으로 삼아 본고에서는 소설 『친화력』에 드러나는 자유와 필연성의 관계를 이 양자의 긴장관계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인물인 오틀리예를 중심으로 해명한다. 이 소설에서 남녀 간의 사랑은 화학 원소들이 친화성에 따라 결합하고 분리되는 것처럼, 강력한 인력의 작용, 즉 자연필연성의 현상으로 묘사된다. 오틀리예는 특히 자연의 힘에 대한 독특한 감수성, 즉 석탄 같은 물질에 대한 반응성과 멀리 떨어져 있는 연인에 대한 텔레파시 등 예사롭지 않은 면모를 보이는데 이는 당대에 유행했던 동물자기설 또는 메스머리즘의 맥락에서 형상화된 것이며 그녀가 아주 특별한 자연필연성의 지배 아래 있다는 점을 뚜렷이 보여준다. 그녀는 에두아르트에 대한 열정적 사랑과 감각적 욕망, 즉 자연필연성으로 인해 과실치사의 죄를 짓게 되지만 이를 계기로 자신의 “레도” 이탈을 깨닫고 도덕성을 지키기 위해 열정적 사랑을 단념한다. 그녀가 자기 성찰을 통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기 마련인 인간의 본성을 버리고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법칙”을 따르기로 자율적으로 결단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청명한 이성자유”의 순간을 목격하게 된다. 에두아르트와의 결합을 단념한 오틀리예는 숙명론적인 자기인식을 바탕으로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천명하지만, 사랑하는 연인과의 재회는 단번에 이러한 결심을 무력화시키고 그녀는 사랑이라는 “흐린 열정적 필연성”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도덕성과 감각성, 도덕적 결단과 숙명적 사랑 사이에서 헤어날 수 없는 아포리아에 빠진 오틀리예는 결국 단식으로 자신의 감각성을 서서히 소멸시킴으로써 살아있는 한 에두아르트를 사랑하는 동시에 자신의 결심을 지킨다.

주제어: 괴테, 친화력, 선택친화성, 인간의 조건, 자유, 필연성, 메스머리즘

I. 선택친화성: 자유와 필연성

1809년 괴테가 환갑의 나이에 출간한 장편소설 『친화력 Die Wahlverwandschaften』은 파격적인 소재와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해석의 여지로 인해 발표 직후부터 호의적인 찬사와 부정적인 평가가 엇갈렸으며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다양한 해석이 시도되고 있는 작품이다. 일찍이 발터 벤야민이 이 소설을 “괴테 시대의 의상을 입고 벌이는 신화적 그림자놀이 ein mythisches Schattenspiel in Kostümen des Goetheschen Zeitalters”(Benjamin 1991, 140f.)라 규정한 것처럼, 이 작품에는 멜랑콜리와 죽음을 암시하는 온갖 신화적 상징들이 숨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나르시스와 에코, 판도라, 『향연 Symposion』의 에로스 등 그리스 신화의 여러 모티브가 동원되어 사랑이라는 주제를 형상화한다. 그런가 하면, 이에 못지않게 전통적인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 천사의 도상 圖像, 십계명을 비롯한 성경 구절, 가톨릭의 성녀 오딜리아 Odilia 등 기독교적 모티브도 작품 구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Vgl. Buschendorf 1986; Wiethölter 2006, 994-1002) 이렇게 신화와 종교 같은 초시간적인 차원에 초점을 맞추면 벤야민이 암시한 것처럼 이 소설은 당대의 사회 현실과는 동떨어진 작품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역사적 맥락과 관련지으면 전통적인 부권의 몰락은 물론 더 나아가 구체제의 붕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회소설로 읽을 수도 있다.(임홍배 2014, 219-244 참조) 또한 ‘친화력’이라는 제목이 암시하는 것처럼 이 소설은 당대의 자연과학 및 철학 담론의 맥락에서도 읽을 수 있다.

‘친화력 Wahlverwandschaften’이란 18세기 화학에서 통용되던 개념으로 독일어 원어를 엄밀히 살리자면 ‘선택 Wahl’과 ‘친화성 Verwandtschaft’이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로서 ‘선택(적) 친화성’이라 번역할 수 있다.¹⁾ 두 원소로 이루어진 어떤 물질에 또 다른 물질을 첨가하면 원소들의 ‘친화성’에 따라 분리와 새로운 결합이 일어나는 현상은 일찍이 알려져 있었으나 이런 현상을 ‘선택친화성 attractio electiva’으로 명명한 사람은 스웨덴의 화학자 토르베른 베리만 Torbern

1) 그러나 괴테의 이 소설은 여러 차례 ‘친화력’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널리 통용되고 있으므로 작품명은 ‘친화력’으로 표기하고, 본문에서 이 단어를 논할 때는 원래 의미를 살려 쓰거나 한다. 역어의 문제를 제기하며 ‘Wahl’의 의미를 보다 적극적으로 표현하여 이 단어를 ‘선택친화성’으로 번역한 경우도 있다.(안삼환 2009, 5 참조)

Bergman이다. 그의 용어를 독일어로 ‘Wahlverwandtschaft 선택친화성’으로 처음 옮긴 이는 바이겔 Weigel이며, 1775년에 출간된 베리만의 저서 『선택친화성에 대하여 De attractionibus electivis』를 타보어 Hein Tabor가 1785년 번역함으로써 이 단어는 독일어에 수용된다.²⁾ 평생 문학창작 못지않게 자연과학 연구에도 몰두했던 괴테는 이미 1796년 비교 해부학에 관한 글에서 화학자들이 의인화하는 표현방식을 쓰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즉 화학자들이 마치 인간사를 다루듯 단지 “더 강하거나 더 약한 관계 stärkere oder schwächere Verhältnisse”를 맺고 있을 뿐인 물질에 “선택의 명예 Ehre einer Wahl”를 부여하지만, 실제로 분리와 결합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단지 “외적인 결정 äußere Determinationen” (MA 12, 206)³⁾일 때가 많다는 것이다. 이쯤에서 다시금 ‘선택친화성’이라는 합성어를 뜯어 보면, ‘선택’은 주체가 어떤 관계를 비로소 생성시키는 ‘행위’를 의미하고 ‘친화성’은 어떤 관계가 선택의 여지 없이 이미 주어진 ‘상태’를 의미하므로, 이 두 낱말은 의미론적으로 실은 거의 결합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다시 말해, ‘선택’은 주체적 행위로서 ‘자유’를 암시하고 ‘친화성’은 자연적으로 이미 주어진 것, 즉 ‘필연성’을 암시하므로 ‘선택친화성’이란 일종의 역설이다.(Vgl. Pörksen 2015, 346f.)

괴테는 『친화력(선택친화성)』을 집필하기 십여 년 전에 이미 이 화학 용어에 내포된 문제점을 간파한 셈인데 그런데도 이 단어를 소설 제목으로 삼은 이유가 무엇일까? 소설이 출간되기 전인 1809년 9월 4일 『교양 계층을 위한 조간신문 Morgenblatt für gebildete Stände』에 실린 작가 자신의 신간 소개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저자는 지속적인 자연과학 연구의 영향으로 이 특이한 제목을 붙인 것 같다. 그는 자연론에서 인간의 지식 영역에서 멀리 떨어진 어떤 것을 좀 더 친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매우 자주 윤리적 비유를 이용한다는 점을 눈치챈 것 같다. 그래서 그는 아

2) Vgl. „wahlverwandtschaft“, in: Deutsches Wörterbuch von Jacob Grimm und Wilhelm Grimm, Erstbearbeitung (1854 - 1960), digitalisierte Version im Digitalen Wörterbuch der deutschen Sprache, <<https://www.dwds.de/wb/dwb/wahlverwandtschaft>>, abgerufen am 07.08.2021.

3) 『친화력』 소설 텍스트를 제외한 괴테의 텍스트 인용은 일반적인 괴테 전집 표기 방식에 따라 판본, 권수, 쪽수의 순으로 표기한다.

마도 어떤 윤리적인 사건에서 화학적 비유담 하나를 그것의 정신적 근원으로 되돌려놓고 싶었던 것 같다. 왜냐하면, 도처에 오직 **하나의 자연**만이 있고 **청명한 이성 자유의 왕국**을 흐린 **열정적 필연성의 흔적**들이 저지할 수 없게 관통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을 것이다. 이 흔적들은 오직 더 높은 손을 통해서만 지워질 수 있고 또 아마도 현생에서는 완전히 지워질 수 없을 것이다.⁴⁾

[강조: 밑줄 - 원저자 / 진한 글씨 - 필자]

위 인용문에서 피테는 앞서 살펴본 본인의 자연과학 저술에서 제기했던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다시 언급하고 있다. 그가 과거에 화학자들이 물질에 “선택의 명예”를 부여한다고 말했을 때는 화학실험에서 다루는 무기물에 무슨 자발적인 의지가 있는 것처럼 ‘선택’ 운운하는 것이 부정확한 표현이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이었다면, 여기에서는 과학자들이 그런 표현법을 쓰는 이유를 이해하는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즉 과학자들이 “윤리적 비유”, 다시 말해 의인화를 이용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소하고 어려운 자연과학적 내용을 좀 더 친근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애초에 과학 용어 자체가 인간적인 비유이므로 “어떤 윤리적인 사건”, 즉 인간사에 “화학적 비유담”, 즉 ‘선택친화성’이라는 화학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실상은 이러한 화학 용어의 “정신적 근원”으로 되돌아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일개 화학 물질의 상위에 존재하는 인간으로서의 “명예”를 암시하는 ‘선택친화성’이라는 용어를 다시 인간의 영역으로 되돌려놓으면서 피테는 이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자유와 필연성의 긴장관계를 직접 언급하고 있다. 즉 그는 이 화학 용어를 인간적인 표현으로 다시 ‘번역’하는데 ‘선택’과 ‘친화성’은 각각 “청명한 이성자유”와 “흐린 열정적 필연성”으로 표현된다. “도처에 오직 하나의 자연만이” 존재한다는 언급으로⁵⁾ 피테는 여기에서 필연적

-
- 4) “Es scheint, daß den Verfasser seine fortgesetzten physikalischen Arbeiten zu diesem seltsamen Titel veranlaßten. Er mochte bemerkt haben, daß man in der Naturlehre sich sehr oft ethischer Gleichnisse bedient, um etwas von dem Kreise menschlichen Wissens weit Entferntes näher heranzubringen; und so hat er auch wohl, in einem sittlichen Falle, eine chemische Gleichnisrede zu ihrem geistigen Ursprunge zurückführen mögen, um so mehr als doch überall nur **eine Natur** ist und auch durch **das Reich der heitern Vernunftfreiheit die Spuren trüber leidenschaftlicher Notwendigkeit** sich unauffhaltsam hindurchziehen, die nur durch eine höhere Hand, und vielleicht auch nicht in diesem Leben, völlig auszulöschen sind.”(HA 6, 639)
- 5) “하나의 자연”에 대한 언급은 스피노자의 일원론적 범신론을 연상시키는데, 피테는 스피노자

인 자연법칙이 지배하는 물질의 세계와 이성적인 자유가 지배하는 인간의 세계라는 이분법을 지양하고 ‘자연의 사다리 Stufenleiter der Natur’의 한 부분으로서 인간에게 이 두 요소가 공존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괴테가 “열정적 필연성”과 “이성자유”, 이 두 가지 요소 모두를 인간의 조건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동시대를 살았던 칸트의 입장과 일맥상통한다. 즉 칸트에 따르면, ‘이성적 동물’인 인간은 동물성 animalitas과 이성성 rationalitas이라는 이중성격을 지니고 있어 한편으로는 감성 세계에 속해 있으므로 자연법칙 아래에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지 세계에 속해 있으므로 순전히 이성에 기초한 법칙 아래에 있다는 것이다.(백중현 2014, 26-27 참조)

필연성과 자유, 감각성과 도덕성, 경향성과 의무, 자연법칙과 이성법칙, 양자 모두가 인간의 조건이지만 이 양자가 서로 정면충돌하는 “윤리적인 사건”이 발생한다면 그런 상황에서 인간은 어떻게 행동할까? 필자는 소설 『친화력』을 이러한 질문에 대한 괴테의 대답으로 보고 이 작품을 “열정적 필연성”과 “이성자유”의 관계를 중심으로 다시 읽어보고자 한다. 쉥스는 괴테의 『친화력』을 “낭만주의적 인 시대에 대한 진단, 낭만주의에 대한 고전주의적인 비판”⁶⁾으로 읽는 과정에서 오틀리에의 자연필연성 *Naturnotwendigkeit*을 강조하며 그녀를 “고전주의적인 ‘청명한 이성자유’ 저편의 영역에 in Bezirken jenseits der klassischen ‚heiteren Vernunftfreiheit“ (Schings 2011, 339) 위치시키는데, 필자가 보기에는 오틀리에에게도 이성자유가 빛나는 순간이 있다. 그리고 그녀의 이러한 도덕적 결단에 주목할 때 우리는 그녀가 처한 아포리아와 소설의 결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잔트카울렌은 한 발 더 나아가 저자 자신이 책광고문에서 밝힌 것과 달리 이 소설은 단지 “호린 열정적 필연성”만을 다루고 있으며 “청명한 이성자유”는 어디에서도, 어떤 인물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Vgl. Sandkaulen 2010, 178-181)⁷⁾ 이는 너무 일면적인 시각이다. 이 작품에서 “경향성과 윤리적인

의 열렬한 독자였으며 그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음을 『시와 진실 Dichtung und Wahrheit』에서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Vgl. FA 14, 728-732; 괴테 2009, 877-883 참조) 그러나 위 인용문의 맥락에서 이 언급은 인간을 포함한 자연의 연속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 스피노자의 결정론적 세계관을 따른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본다.

6) “eine Diagnose des romantischen Zeitalters, eine klassische Kritik der Romantik”(Schings 2011, 340)

7) 그래서 그녀는 괴테가 쓴 광고문의 진정한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괴테를 매혹했던 스피

것의 투쟁 Kampf des Sittlichen mit der Neigung”을 볼 수 없다는 당대의 비평에 대해 작가 자신이 이 투쟁은 “장면 뒤로 옮겨져 있다 hinter die Scene verlegt”(HA 6, 640)고 대답한 것처럼 필연성과 자유, 감각성과 도덕성의 대립 및 갈등은 명시적으로 서술되기보다 인물의 말과 행동에서 암시되며 보이지 않는, 즉 구체적으로 묘사되지 않는 인물의 내면에서 격렬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읽어낼 수 있다. 피르크젠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친화력』에서 “자연필연성과 이성자유 간의 긴장의 장 위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인간 행동의 현상학”⁸⁾을 관찰할 수 있다. 소설의 출간을 예고하는 위의 인용문에서 작가 자신은 “열정적 필연성의 흔적들”이 “현생에서는” 완전히 지워질 수 없고 “오직 더 높은 손”만이 이 흔적을 제거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어떤 초월적 심급이라 할 수 있을 이 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와 별개로, 이 대목은 결국 인간 역시 자연의 일부분으로서 살아 있는 한 자연법칙의 필연성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⁹⁾ 작가의 이러한 의도가 작품에서 그대로 실현되는지, 그리고 실제 작중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래에서는 필연성과 자유의 긴장 관계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인물인 오틀리에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노자의 『에티카 Ethica』를 배경으로 이 작품을 읽어야 한다면서, 스피노자에게서 가장 하위의 인식이자 부적절한 인식인 imaginatio가 지배하는 상황을 문학적 형식으로 번역한 것이, 바로 이 소설이라고 주장한다.(Vgl. Sandkaulen 2010)

- 8) “eine Phänomenologie variierenden menschlichen Verhaltens auf dem Spannungsfeld zwischen Naturnotwendigkeit und Vernunftfreiheit”(Pörksen 2015, 355) 피르크젠은 “신화적인 것이 이 책의 사실내용 Das Mythische ist der Sachgehalt dieses Buches”(Benjamin 1991, 140)이라는 벤야민의 테제를 반박하며 바로 이러한 인간 현상학이 『친화력』의 사실내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는 논문에서 그러한 현상학 자체를 구체적으로 예증하는 것보다 피테의 자연과학적 구상과 소설 『친화력』 사이의 관계를 해명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 9) “더 높은 손”에 대한 필자의 해석은 III.2에서 다룰 것이다. 피테는 후일 에커만과의 대화에서 자신이 『친화력』을 집필할 때 의식적으로 어떤 “결정적인 이념 durchgreifende[] Idee”(HA 6, 643)을 서술하고자 했다고 밝히는데 위에서 인용한 해설을 이 ‘이념’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II. “흐린 열정적 필연성”의 세계

II. 1. 열정적 필연성으로서의 사랑

『친화력(선택친화성)』에서 남녀 간의 사랑은 마치 자석의 N극과 S극이 서로 끌어당기듯, 즉 필연적 법칙이 지배하는 자연계에서처럼 친화성을 띤 두 사람 사이에 강력한 인력이 작용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¹⁰⁾ 대위와 오티리에가 차례로 에두아르트와 샤를로테 부부의 성에 온 이후 네 사람의 관계는 1부 4장에서 두 남성이 물질 간의 ‘선택친화성’ 개념에 관해 설명한 것과 유사하게 분리와 재결합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선택친화성 대화에서 에두아르트는 샤를로테(A)와 자신(B)의 결합에 대위(C)가 끼어들으로써 외로워진 샤를로테에게 오티리에(D)를 붙여주면 두 쌍의 동성 결합이 이루어지거나[$AB+C \rightarrow A+BC+D \rightarrow AD+BC$] 혹 대위와 오티리에가 가까워지면 자신은 친구를 떠나 아내에게로 되돌아가면 된다고 말한다. [$AB+C \rightarrow A+BC+D \rightarrow AB+CD$] 그러나 실제 결합은 대위가 화학실험에서 가장 중요하고 주목할 만한 경우라고 언급한 것처럼 “교차로 *übers Kreuz*”(305)¹¹⁾ 일어난다. [$AB+C \rightarrow A+BC+D \rightarrow AC+BD$]

오티리에와 에두아르트의 친화성은 이 비유담 대화의 끝부분에서 에두아르트가 각각 왼쪽과 오른쪽에 편두통이 있는 두 사람이 “한 쌍의 멋진 대칭상 ein Paar artige Gegenbilder”(311)을 이룰 것이라고 언급함으로써 이미 암시되며, 오티리에의 선택친화성의 장에 들어오자마자 새로 합류한 원소로서 부부의 친화성을 위협하는 더 강력한 친화성을 에두아르트에게 발산한다. 즉 그녀가 도착한 다음 날 이미 에두아르트는 아내에게 오티리에가 호감이 가는 “재미있는 *unterhaltend*”(312) 아가씨라고 말하고 그녀가 아직 입도 뻥긋하지 않았다는 아내의 지적에 신기해한다. 집안 살림을 맡은 오티리에가 에두아르트의 취향과 습관을 재빨리 파악하여 그를 세심하게 챙겨주자 그녀는 곧 그에게 “친절한 수호천사처럼 wie ein freundlicher Schutzgeist”(320)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된다. 마치 상

10) 본고에서는 이 작품에 나타난 사랑을 “열정적 필연성”의 관점에서 본다. 결혼이라는 제도와 대비되는 ‘낭만적 사랑’에 대해서는 (오순희 2011 참조).

11) 『친화력』에서의 인용은 프랑크푸르트 판본 FA 8권에 따라 본문 내에 쪽수를 표기한다. 인용문은 필자가 직접 번역하였으며 다음 번역본을 참조하였다.(괴테 2011)

반되는 성질의 “알칼리와 산 Akalien und Säuren”(302)에서 친화성이 눈에 띄게 드러나는 것처럼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상대방에게 잘 맞춰주고 봉사하는 성격의 오틀리에와 자기중심적이고 자의적이며 고집불통인 에두아르트는 서로에게 완전히 빠져든다. 한편 샤를로테와 대위는 영지의 공원 조성 사업을 함께 해나가며 서로에 대해 더 잘 알게 되면서 차츰 가까워진다. 매사에 합리적이고 사려 깊고 침착한 성격의 소유자인 두 사람은 서로 비슷한 성격에 이끌린다. 그러나 바로 이런 성격으로 인해 대위는 샤를로테에 대한 자신의 호감을 의식하자마자 그녀를 피하기 시작하고 샤를로테 역시 그런 대위의 의도를 곧 알아차리고 그를 더욱 존중한다.

오틀리에, 에두아르트 커플과 샤를로테, 대위 커플이 형성되고 갈라지는 과정은 1부 4장에서 묘사된 물질 간의 선택친화성이 작용하는 과정과 유사하게 그려진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다음과 같이 양자를 묘사하는 데 동원된 매우 비슷한 표현이다.

가) 누가 상대를 먼저 떠났는지, 누가 상대와 먼저 다시 결합했는지 말할 수 없이 ohne daß man sagen kann, **wer das andere** zuerst verlassen, wer sich mit dem andern zuerst wieder verbunden habe(306)

나) 누가 상대를 먼저 붙잡았는지는 구별할 수 없었을 것이다. [강조 필자]

Wer das andere zuerst ergriffen, wäre nicht zu unterscheiden gewesen.(355)

가)는 대위가 선택친화성 개념을 마지막으로 요약하면서 알파벳 기호를 이용해 물질 간의 분리와 재결합을 설명하는 대목이고 나)는 오틀리에와 에두아르트가 함께 에두아르트가 쓴 원본과 오틀리에의 필사본을 대조해 본 후 필체의 유사성에 감격해서 처음으로 포옹하는 대목이다. 가)의 논의 대상은 물질인데 여기서 “무엇이 was” 대신 굳이 “누가 wer”를 쓴 것이나 나)에서 “상대 das andere”를 표현할 때 굳이 중성의 정관사를 쓴 것은, 물질과 인간 사이의 유비를 강조하기 위한 작가의 매우 의도적인 선택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에서 예컨대 ‘포옹하다 umarmen’라는 동사를 쓰지 않고 앞서 물질의 결합을 설명할 때 반복적으로 등장했던(302, 305) 동사 ‘ergreifen’을 쓴 것도 마찬가지이다.

대위가 샤를로테를 향한 자신의 강한 이끌림을 의식적으로 인지하는 대목에서

도 “그를 샤를로테에게 묶다 ihn an Charlotte zu fesseln”(329)처럼 물질 간의 선택친화성을 설명할 때 동원된 어휘들과 유사한 표현이 등장한다. 마찬가지로 대위에게 호감을 느낀 샤를로테가 처음 며칠간 대위가 자신을 피하는 줄 모르고 공원 여기저기에서 그를 “찾았던 suchte”(329) 것도 “이처럼 떠나보내고 붙잡고, 달아나고 찾는 것에서 In diesem Fahrenlassen und Ergreifen, in diesem Fliehen und Suchen”(305)와 같이 물질의 분리와 결합을 묘사하는 대목을 연상시킨다. 또한, 대위를 완전히 단념하고 부부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자 작정한 샤를로테가 그동안 자기 자신에게 행사해온 “강제력 Gewalt”(373)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대목 역시 마찬가지다. 여기에서 자체력을 발휘한다든가 감정을 억누른다는 표현을 쓸 수도 있는데 왜 굳이 ‘강제력’일까? 남녀 간의 강력한 인력을 끊어놓기 위해서는 강제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샤를로테의 모습에서 물질 간의 단단한 결합은 “강제력이나 그 밖의 조건을 통해서가 아니면 außer Gewalt oder sonstige Bestimmung”(301) 해체되지 않는다는 1부 4장의 설명이 떠오르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것이다. 이렇듯 괴테는 남녀 간의 관계를 묘사하면서 물질 간의 선택친화성 개념을 설명할 때 언급되었던 어휘를 사용함으로써 열정적 사랑을 자연필연성의 현상으로 묘사하고 있다.

II. 2. 자연필연성으로서의 동물 자기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네 명의 남녀 주인공이 모두 ‘선택친화성’이라는 “열정적 필연성”의 지배를 받지만 오틀리에는 특히 자연의 힘에 대한 독특한 감수성, 즉 무기물에 대한 반응성을 보여준다. 특정 광물에 대해 오틀리어가 보이는 정서적, 신체적 반응에 대한 묘사와 이러한 현상을 둘러싼 등장인물들의 견해 차이에는 18세기 후반 유행했던 동물 자기설 Animalischer Magnetismus 또는 메스머리즘 Mesmerismus과 이에 대한 당대의 논쟁 및 괴테 자신의 태도가 반영되어 있다.¹²⁾ 동물 자기설을 처음으로 주창한 의사 메스머 Franz Anton Mesmer는 이 우주에 아주 미세한 유체 Fluidum가 편재하며 이 유체가 생명이 있든 없든

12) 메스머리즘은 18세기 후반 빈과 파리 등지에서 신경성 질환 치료로 명성을 떨쳤던 의사 메스머의 이름을 딴 명칭으로 의학사적으로 보면 최면요법의 선구적 형태라 할 수 있다.

자연을 관통해 흐르며 인간을 자연 속으로 조화롭게 통합시킨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 유체, 즉 자기 磁氣의 흐름이 막혀서 정체될 경우 질병이 생기며 신경계에 생긴 이 정체를 자력을 이용해 풀어주면 질병이 낫는다는 것이 메스머의 주장이었다. 이러한 동물 자기 이론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또 하나의 현상으로 몽유병 Somnambulismus을 들 수 있다. 메스머의 제자였던 뤼제규어 Puysegur 후작은 1784년에 처음으로 환자를 최면 상태에 빠뜨리는데 이러한 소위 ‘인위적 몽유병’은 후대에 가면 심층심리학적 치료, 즉 최면요법의 선구적 형태로 분류된다. 예컨대 금수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진 상태나 예감 능력 및 텔레파시적 능력이 강화된 상태, 특히 ‘자기적 라포르 Rapport’, 즉 최면술사에 대한 애착 또는 의존성 같은 현상들이 모두 몽유병적 상태에 속한다. 괴테는 당대에 유행했던 동물 자기설 및 몽유병에 관한 저술을 두루 읽으면서 이론적 논의의 흐름을 계속 따라갔을 뿐만 아니라 지인들과 주고받은 편지나 일기 등을 통해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도 했으며 자신의 작품 속에 이러한 모티브를 활용하기도 했다.(Vgl. Barkhoff 1998, 76-79) 『친화력』에서 괴테는 오틸리에를 보통 사람들보다 강력한 자연법칙의 지배 아래 있는 특별한 인물로 설정하기 위해 동물 자기설과 몽유병 모티브를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소설의 2부 11장에는 여성들만 남아있는 영지를 방문한 영국 귀족의 동행인이 오틸리에의 동물 자기적 특성을 발견하는 장면이 나온다. 오틸리에에는 이 동행인과 함께 호수가 있는 드넓은 공원을 산책할 때 어떤 셋길을 피하려고 나룻배로 호수를 건너는데 그 셋길에 들어설 때마다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독특한 진을 ein ganz eigener Schauer”(480)이 엄습하고 곧이어 왼쪽 머리에 두통이 시작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설명을 들은 동행인은 오틸리에가 피한 그 장소를 조사해 보고 매우 뚜렷한 석탄의 흔적을 발견한다. “비록 현재로서는 우리에게 숨겨져 있지만, 비유기적 존재들 사이, 유기적 존재들과 비유기적 존재들 사이, 그리고 또한 유기적 존재들 사이에 분명히 여러 연관 관계와 친화성이 드러날 것이므로”¹³⁾ 그는 유기적 존재인 오틸리에와 무기물인 석탄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오틸리에에게 직접 진자운동 실험을 해보려 하며 영국 귀족은 이를

13) “da sich gewiß noch manche Bezüge und Verwandtschaften unorganischer Wesen untereinander, organischer gegen sie und abermals untereinander, offenbaren würden, die uns gegenwärtig verborgen seien.”(480 f.)

탐탁지 않아 한다.¹⁴⁾ 피실험자가 아래에 놓여 있는 금속 위로 진자를 드리우고 있는 이 실험에서 샤를로테가 진자를 잡았을 때는 미동도 없지만 오틀리에가 진자를 잡자 추는 “마치 뚜렷한 소용돌이에 휩쓸린 것처럼 wie in einem entschiedenen Wirbel fortgerissen”(481) 격렬하게 움직인다. 호기심이 넘치는 동행인은 조건을 바꿔가며 실험을 계속하고 묵묵히 그의 요구를 들어주던 오틀리에가 마침내 두통이 생기니 그만하자고 부탁하자 그는 오히려 기뻐하며 자신이 그녀의 증상을 치료해주겠다고 나선다. 하지만 샤를로테는 그 치료법의 성격을 곧바로 눈치채고 그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한다. 이러한 에피소드에서 영국 귀족의 동행인은 동물 자기설을 토대로 신경병증이 있는 환자들에게 자기 요법을 시행해 명성을 얻었던 메스머와 그의 추종자들을 연상시키며, 합리적인 성격의 샤를로테와 영국 귀족이 진자실험이나 자기 요법에 대해 의심과 반감을 드러내는 모습에는 메스머리즘을 비과학적인 사기로 치부했던 진영의 태도가 반영되어 있다.

오틀리에에게는 광물에 대한 민감성뿐만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몽유병적 텔레파시 능력까지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늙은 성직자가 아기 오도의 세례식을 거행하던 중 갑자기 운명하는 에피소드가 나오는 2부 8장의 끝부분에는 사랑하는 연인과 떨어져 지내며 삶의 무상함과 상실감에 시달리는 오틀리에를 위로해주는 “밤의 기이한 현상들 wundersame nächtliche Erscheinungen”(458)이 언급된다. 그녀가 달콤한 감정으로 비몽사몽 중일 때 나타나는 에두아르트¹⁵⁾의 모습은 우리가 보통 꿈에서 보는 이미지와는 다르게 묘사된다. 즉 오틀리에에는 아주 환하고도 부드럽게 빛나는 어떤 공간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느끼며, 에두아르트는 참전군인의 복장을 하고 매번 다른 자세로 환상적인 요소라고는 전혀 없는, 매우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그 속에 나타난다. “그녀가 그렇게 하려고 의도하거나 애써 상상력을 발휘하지 않고도 ohne daß sie wollte oder die Einbildungskraft anstregte”(459) 연인의 형상은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선명한 모습으로 눈앞에서 움직이는 데에 반해, 때때로 그의 배경에 나타나는 다른 이미지들은 거의 분간하기 어렵고 사람이나 말, 나무 등으로 보인다. 에두아르트의 모습이 매우 사실적일 뿐

14) 이러한 진자실험 장면은 당대 실제로 있었던 사건, 즉 이탈리아인 캠페티가 프란츠 바더, 요한 빌헬름 폰 리터, 켈링 등 낭만주의 자연철학자들을 대상으로 행한 실험을 토대로 한 것이다.(Vgl. Schings 2011, 338)

만 아니라 오틀리에의 의지나 상상력과 상관없이 나타나는 점, 그리고 그녀와 사랑의 힘으로 강하게 연결된 연인의 모습은 선명하게 보이는 데에 반해 그 배경은 희미하게 보인다는 설명은 그녀에게 나타나는 멀리 떨어져 있는 연인의 영상이 단순한 꿈이나 상상이 아니라 텔레파시적 능력의 산물이라는 점을 암시한다. 그리고 “보통 그녀는 그 현상을 보면서 잠들었다 *Gewöhnlich schlief sie über der Erscheinung ein*”(459)는 구절은 이 “밤의 기이한 현상들”이 잠든 후에 꾸는 꿈이 아니라는 결정적 증거를 제공한다. 오틀리에가 이런 밤을 보낸 후 아침에 깨어났을 때는 “생기가 돌고 위로받은 *erquickt, getröstet*”(459) 상태로 자신이 에두아르트와 가장 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확신했다는 서술은 몽유병의 긍정적인 측면을 보여준다. 즉 괴테는 앞서 진자실험의 예에서 본 것처럼 인위적으로 몽유병적 상태를 끌어내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인간에게 어떤 불가사의하고 경이로운 힘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긍정했음이 대목에서도 알 수 있다.

석탄이 매장된 곳 근처에서 느끼는 전율과 두통, 진자실험에서 나타나는 격렬한 반응, 멀리 떨어져 있는 연인에 대한 텔레파시 등 오틀리에가 보여주는 특이한 모습은 이렇듯 당대에 유행했던 동물 자기론의 맥락에서 형상화된 것이며 그녀가 아주 특별한 자연필연성의 지배 아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괴테는 『색채론』을 비롯한 많은 자연과학 저술을 집필한 과학자로서는 메스머리즘에 대해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지만, 그가 남긴 일기와 편지, 대화록 등 사적인 글에는 그의 견해가 뚜렷이 드러난다.¹⁵⁾ 즉 괴테는 자기 요법을 실행하는 사람들과 이 치료법의 효과는 불신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력과 같은 경이로운 힘들이 인간에게 내재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메스머리즘을 싸잡아서 사기라고 비난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자연현상을 합리주의적, 환원주의적으로 부인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똑같이 거리를 두었다.¹⁶⁾ 이러한 입장을 고려하면, 괴테가 작품 속 등장인물에게 동물 자기적 속성을 부여한 것은 당대의

15) 괴테의 견해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일기나 편지의 구절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Vgl. Barkhoff 1998, 79f.)

16) 오틀리에의 동물 자기적 특성과 몽유병적 특성이 낭만주의, 보다 정확히 말해 낭만주의적 자연철학의 맥락에서 형상화된 것은 분명하지만, 쉴스가 주장하듯 괴테가 전적으로 비판적인 의도에서만 이러한 모티브를 도입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Vgl. Schings 2011, 336-340)

유행 담론을 비판적으로 수용한 결과로 인간이 자연법칙에 종속된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

III. 자유와 필연성 사이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오틀리에는 한편으로는 등장인물 중 누구보다도 자연법칙의 필연성에 지배받는 존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도덕적 결단을 감행할 줄 아는 자유로운 면모를 보이기도 한다. 오틀리에의 이러한 양면성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대목은 2부 13장에서 실수로 아기 오토를 호수에 빠뜨려 죽게 하는 장면과 이어지는 14장에서 결코 에두아르트의 여자가 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장면이다. 오토가 사고로 죽게 되는 일차적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은 바로 아이의 생부인 에두아르트이다. 아내에게 그사이 소령으로 진급한 친구를 전령으로 보내 이혼을 추진하기로 한 그는 차분히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영지를 서성이다 오틀리에를 맞닥뜨린다. 일 년 가까이 떨어져 지내며 그리워하던 연인이 갑자기 눈앞에 나타나 이 순간 이미 이혼이 결정되었을 수도 있다며 청혼하니 오틀리에로서는 격렬한 심적 동요를 겪을 수밖에 없다. 샤를로테의 동의를 전제로 청혼을 수락한 그녀는 일단 기다려보라며 성마른 애인을 달래 돌려보내지만 정작 본인도 흥분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사랑하는 연인과의 포옹, 처음으로 나눈 “스스럼없는 키스 freie Küsse”(493)는 그녀의 섹슈얼리티를 일깨우고 곧 손에 잡힐 듯이 다가온 행복의 전망은 그녀를 “흐린 열정적 필연성”이 지배하는 상태로 몰아넣는다. 이미 땅거미가 내린 이 시간에 샤를로테가 자신과 아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걱정은 빨리 그녀의 결정을 알고 싶은 본인의 마음이 투사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정신이 나가버릴 지경인 줄도 느끼지 못하고”¹⁷⁾ 허둥대며 지름길로 가려고 나룻배에 올라탄 오틀리에는 결국 넘어지며 아기를 물속으로 빠뜨린다. 아기의 죽음을 불러온 것은 결국 그녀의 열정적 사랑 또는 감각적 욕망, 즉,

17) “sie fühlt nicht daß ihr Herz pocht, daß ihre Füße schwanken, daß ihr die Sinne zu vergehen drohn”(494)

자연필연성이다.

III. 1. “청명한 이성자유”의 순간

오틀리에는 치명적인 에로스로 인해 비록 과실치사의 죄를 짓게 되지만 사고 이후 그녀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분명히 인식하고 에두아르트를 단념한다. 샤를로테는 사고 소식을 듣고 찾아온 소령과 마주 앉아 침묵으로 애도의 밤을 지새운 후 아침 무렵 이혼에 대해 의논하는데, 이때 샤를로테의 무릎에 기대어 자는 것처럼 보였던 오틀리제가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어떤 상태였는지가 그녀의 자기인식과 결심의 성격을 규명할 열쇠이다. 바르크호프는 그녀의 “반쯤 죽은 듯한 잠 halben Totenschlaf”(498)을 위에서 살펴본 메스머리즘 모티브의 하나로, 즉 몽유병적 상태로 보고 여기에서 깨어난 오틀리제가 표명하는 결심을 “선先반성적인, 완전히 즉각적인 도덕성 vorreflexive, gänzlich spontane Moralität”(Barkhoff 1998, 94)의 발로로 여긴다. 이에 반해 미헬젠은 그녀의 상태가 몽유병적 트랜스가 아니라 “의식이 유지되는 근육 마비 상태 Zustand der Gliederlähmung oder -starre bei Beibehaltung des Bewußtseins”이며 그녀의 결심은 “이성의 피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geschieht nicht jenseits der Vernunft”(Michelsen 1996, 155) 본다. 필자 역시 미헬젠과 같은 입장인데 오틀리제가 이성에 입각한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의식이 뚜렷한 상태였다는 점은 본인의 입으로 설명된다. 그녀는 소령이 떠난 직후 자리에서 일어나서 “두 번째로 내게 똑같은 일이 일어나네요 zum zweitenmal widerfährt mir dasselbige”(499)라며 어린 시절 어머니가 돌아가신 직후에 겪은 자신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¹⁸⁾

내 머리는 당신 무릎 위에 놓여 있었는데, 나는 자는 것도 아니고 깨어있는 것도 아니고, 졸고 있었어요.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특히 사람들이 하는 이야

18) 오틀리에는 샤를로테의 무릎에 기대어 자신의 신체에 대한 제어를 상실한 상태에서 주변의 대화 내용을 모두 듣는 경험을 두 번이나 하는데 그때마다 직전에 상실의 트라우마를 겪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어린 시절에는 어머니를 잃어 사고무친의 고아가 되었고, 이번에는 자신이 “다른 부류의 어머니처럼 eine andre Art von Mutter”(482) 정성을 다해 돌보던 아기를 자신의 실수로 잃었다.

기는 전부 들었어요, 매우 분명하게요. 그런데도 나는 움직일 수도, 말을 할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설사 그러려고 했다 해도, 내가 의식이 있다는 걸 암시할 수 없었을 거예요.¹⁹⁾

어린 시절 겪었던 것과 똑같은 일이 두 번째로 일어났다는 말은 오틀리에게 이번에도 두 사람 간의 대화 내용을 전부 듣고 뚜렷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결심했다는 의미이다. 정신은 깨어있고 몸은 마비된 상태에서 샤를로테의 말을 들으면서 자기 인생의 “법칙”²⁰⁾을 수립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해도 그 법칙의 성격은 서로 같지 않다. “불쌍한 고아로 als eine arme Waise”(499) 세상에 남겨진 오틀리에게 당시 돌아가신 어머니의 절친한 친구가 자신에 대해 걱정하는 말을 듣고 좁은 소견에 따라 세운 인생의 원칙은 타율적 자기규정의 성격이 강하며, 이 점은 그녀의 회고적 반성 속에 암시된다. “어쩌면 나는 당신이 나를 위해 바라거나 나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너무 엄격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²¹⁾ 어린 오틀리에게 세운 원칙의 내용이 무엇이었던지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지만, 그녀가 당시 처한 상황과 작품에 묘사된 그녀의 성품으로 미루어 보아 그녀가 ‘절제하고 봉사하는 삶’을 인생의 금과옥조로 삼았으리라는 점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겸손, 친절, 절제와 같은 오틀리에의 성격은 소설의 초반에 샤를로테가 언급하듯 친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기도 하지만²²⁾ 남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처지의 어린아이가 장차 자신을 돌봐줄 수도 있

19) “mein Haupt lag auf deinen Knien, ich schlief nicht, ich wachte nicht; ich schlummerte. Ich vernahm alles was um mich vorging, besonders alle Reden sehr deutlich; und doch konnte ich mich nicht regen, mich nicht äußern, und wenn ich auch gewollt hätte, nicht andeuten, daß ich meiner selbst mich bewußt fühlte.”(499) 오틀리에는 소설 전체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2부 14장의 이 대목에서만 샤를로테에게 거리감이 있는 존댓말 *Siezen*이 아닌 친근한 반말 *Duzen*로 얘기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경어체의 느낌을 주지 않기 위해 인칭대명사는 낮춤말인 ‘저’ 대신 ‘나’로 번역했다.

20) 오틀리에는 여기서 “법칙 *Gesetze*”(500)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칸트 윤리학적 의미에서 본다면, 그녀가 어린 시절 세운 ‘법칙’은 개인의 주관적 행위 원칙으로서 칸트의 ‘준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너의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 법칙 수립의 원리로서 타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위하라. Handle so, daß die **Maxime** deines Willens jederzeit zugleich als Princip einer allgemeinen **Gesetzgebung** gelten könne.”(칸트 2009, 91; 칸트 2003, 41; 강조 인용자)

21) “Ich faßte [...] vielleicht zu streng, was du für mich zu wünschen, was du von mir zu fordern schienst.”(500)

는 어른의 바람을 내면화함으로써 더욱 강화된 결과이기도 한 것이다.²³⁾ 이런 점은 오틀리에가 “자기 인생의 비밀 *das Geheimnis ihres Lebensganges*”을 샤를로테에게 털어놓은 이후, 즉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대화 이후로 “이전의 제한에서, 봉사하는 성격에서 벗어났다 *von ihrer frühen Einschränkung, von ihrer Dienstbarkeit entbunden.*”(502)는 서술자의 서술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이렇듯 어린 시절 오틀리에가 세운 인생의 준칙은 타율적 성격이 강하지만, 사고 이후 그녀는 연인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바와 달리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자신의 인생행로를 결정한다.

하지만 나는 나의 **궤도**에서 이탈했고 나의 **법칙**을 어겼어요. 심지어 나는 그 **법칙에 대한 감마저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후 당신은 내게 다시 첫 번째보다 더 비참한 내 상태를 **깨우쳐 주고 있어요**. 당신의 무릎에서 쉬면서, 반은 굶어버린 채로, 마치 어떤 낯선 세계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또다시 내 귀위로 들리는 당신의 나지막한 음성을 듣고 **있어요**. 나는 나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 듣고 **있어요**.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몸서리쳐요**. 하지만 그때처럼 이번에도 나는 반쯤 죽은 듯한 잠속에서 나의 **새로운 궤도**를 그려보았어요. [...] 절대로 에두아르트의 여자는 되지 않을 거예요! 끔찍한 방식으로 신께서는 내가 어떤 **범죄**에 사로잡혀 있는지 내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나는 속죄할 거예요.²⁴⁾ [강조 필자]

위의 인용문에서 우선 주목할 부분은 바로 시제인데 오틀리에에는 조금 전 샤를로테와 소령이 대화를 나누던 순간 자신이 경험한 자기인식 과정을 현재시제로

-
- 22) 1부 2장에서 샤를로테는 오틀리에에게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친구인 그녀 어머니의 성격 전부를 그대로 볼 수 있다고 말한다.(Vgl. 280f.)
- 23) 오틀리에가 어린 시절 세운 법칙에서 타율적 성격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명시적으로 강요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녀의 자기규정은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윈 자신의 트라우마를 상쇄하기 위해 스스로 세운 생존 전략으로 볼 수도 있다.
- 24) “Aber ich bin aus meiner **Bahn** geschritten, ich habe meine **Gesetze** gebrochen, ich habe sogar **das Gefühl derselben** verloren, und nach einem schrecklichen Ereignis **klärst** du mich wieder über meinen Zustand **auf**, der jammervoller ist als der erste. Auf deinem Schoße ruhend, halb erstarrt, wie aus einer fremden Welt **vernehm**’ ich abermals deine leise Stimme über meinem Ohr; ich **vernehme**, wie es mit mir selbst aussieht; ich **schaudere** über mich selbst: aber wie damals habe ich auch diesmal in meinem halben Totenschlaf mir meine **neue Bahn** vorgezeichnet. [...] Eduardens werd’ ich nie! Auf eine schreckliche Weise hat Gott mir die Augen geöffnet, in welchem **Verbrechen** ich befangen bin. Ich will es büßen.”(500)

말하고 있다. 이것은 자신이 애육에 사로잡혀 자신의 “법칙”을 어겼다는 사실을 깨달은 부정적 자기인식의 순간이 그녀에게 트라우마의 순간이었으며, 그 사실을 고백하는 이 순간 그 당시의 충격을 그대로 다시 체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²⁵⁾ 인용문을 보면 오틀리에는 근육마비의 상태에서 샤를로테가 소령에게 하는 말을 듣고 자신의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오틀리에는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 들으면서 자신에 대해 “몸서리”를 친다고 말하고 있는데, 앞서 샤를로테가 오틀리에에 대한 원망의 말이나 부정적 평가를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Vgl. 497f.)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오틀리에 스스로 샤를로테의 말에 비추어 자신을 객관화한 결과이다. 예컨대, 정작 아이를 죽게 만든 것은 오틀리에 자신인데 샤를로테는 진작 이혼에 동의하지 않고 망설이고 저항함으로써 자기가 아이를 죽였다고 자책한다. 샤를로테가 소령에게 “이성과 덕성, 의무와 성스러운 모든 것이 운명에 저항해봤자 소용없어요. Vergebens, daß Vernunft und Tugend, Pflicht und alles Heilige sich ihm[Schicksal] in den Weg stellen”(497)라고 말할 때 그녀는 자신이 소령을 향한 애정을 “이성”과 자기 절제의 “덕성”으로 억누르고 아내의 “의무”를 다하면서 “성스러운” 결혼과 가정을 지켜내고자 애썼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음을 절망적으로 토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말을 듣는 오틀리에는 자신이 그동안 사랑에 눈이 멀어 샤를로테가 원래 이혼을 원치 않았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도 못하고²⁶⁾ “이성”, “덕성”, “의무” 등 샤를로테가 나열한 가치들을 모두 잊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을 것이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오틀리에는 에두아르트와 결합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냐며 두 사람을 맺어주려는 샤를로테의 말을 들으면서 오틀리에는 친

25) 트라우마의 순간과 똑같은 정서적, 신체적 반응을 그대로 다시 체험하는 것은 트라우마의 전형적인 증상이다. 오틀리에는 트라우마에 대해서는 (Vgl. Cho 2015, 194-230)

26) 에두아르트가 갑자기 성을 떠나기 전까지의 상황을 보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는 열정에 사로잡혀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였고 순진한 오틀리에는 샤를로테가 대위에게 애정을 품고 있으며 그녀도 이혼을 원하니 이혼을 추진할 것이라는 에두아르트의 말을 전적으로 믿었다.(Vgl. 364)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야민이 인정한 것처럼, 울리안 슈미트의 다음과 같은 질문은 나름의 타당성을 갖는다. “오틀리에는 죄를 저지른다. 그녀는 그 죄를 나중에 아주 깊이 느낀다. 필요 이상으로 깊이 느낀다. 하지만 그녀가 그것을 이전에 느끼지 않은 것은 어떻게 된 일인가? [...] 것처럼 잘 가꿔지고 잘 길러진 오틀리에와 같은 영혼이 에두아르트에 대한 자신의 행동 방식으로 인해 자신을 후원해주는 여인인 샤를로테에게 불의를 저지른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벤야민 2012, 146-7; Benjamin 1991, 177)

자식을 잃고도 자신을 염려하는 양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것이다. 오틀리에는 열정적 사랑의 감정과 욕망에 사로잡혀 결과적으로 아기를 죽게 만든 “끔찍한 방식으로” 자신의 “궤도” 이탈과 “법칙” 위반을 깨닫고 그런 자신에 대해 경악한다.²⁷⁾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법칙 위반을 그녀는 “범죄”라 부른다. 즉 여기에서 그녀가 말하는 범죄는 자신의 과실치사 행위를 곧바로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오틀리에에게 아기 오토는 한편으로는 자신을 사랑으로 돌봐준 양어머니의 아들이므로 남동생과 같은 존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남자의 아이이면서 동시에 둘이 한창 사랑에 빠져있을 때, 즉 에두아르트가 결혼의 전망을 속삭이던 무렵 잉태되어 그녀에게 충격을 안겨준 존재이기도 하다.²⁸⁾ 그러나 그녀가 아기의 죽음을 무의식적으로 고대했으며 프로이트적인 실수를 통해 이를 실현했다는 혐의는 그녀만이 파트너 교환이라는 해피엔드를 거부함으로써 명백히 제거된다.(Vgl. Boa 2002, 227)²⁹⁾ 샤를로테는 소령에게 에두아르트와 오틀리에의 결합을 당연한 일로 전제하며 자기 걱정은 말고 이혼을 추진하라고 말하지만, 소령이 떠난 후 오틀리에에는 자기는 절대 에두아르트의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선언할 뿐만 아니라 샤를로테가 이혼에 동의할 경우 호수에서 속죄하겠다고까지 한다. 어린 시절 오틀리에가 샤를로테의 말을 내면화하며 샤를로테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궤도”를 설정했다면, 지금 오틀리에에는 순전히 자기 판단에 따라 샤를로테가 말하는 내용과 반대 방향으로 자신의 “새로운 궤도”를 설정한다. 즉 오틀리에에는 이제 도덕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감각적 경향성, 달리 말해 열정적 사랑을 스스로 단념하는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자율적 주체로 거듭난다. 오틀리에의 주체적 면모는 그녀와 샤를로테, 두 사람의 관계가 최소한 정신적인 면에서는 이

27) 오틀리에의 어법으로 궤도란 스스로 세운 법칙을 따르는 인생행로이다.

28) 샤를로테의 임신 사실이 오틀리에에게 충격을 준 것은 분명하지만 오토가 태어난 이후 오틀리에에는 틈만 나면 아기를 데리고 에두아르트의 드넓은 영지를 산책하며 아버지의 부를 상속받을 아기가 부모와 함께 자랄 수 있도록 자신이 에두아르트를 단념해야 한다고, 또 단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부 9장 참조(Vgl. 461).

29) 필자도 엘리자베트 보아와 같은 입장이지만, 오틀리에가 아이를 데리고 나룻배를 타는 것에 대한 샤를로테의 염려(Vgl. 465)에도 불구하고 “무의식적인 소망 ein unbewußter Wunsch”에 이끌려 그런 행동을 했다는 해석도 존재한다.(Vgl. Nolan 1982, 94) 에리카 놀란은 오틀리에가 산장의 발코니에서 샤를로테의 흰옷을 보았다고 착각하는 장면을 두고 오틀리에 자신이 이미 신부이자 여주인으로서 거기 서 있고자 하는 소망의 반영이라고 해석한다.

제 수직적이지 않고 수평화되었다는 점을 통해서도 강조되는데, 이는 2부 14장의 이 결정적 대화를 전후로 한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이 둘을 “친구”³⁰⁾로 부르는 서술자의 어휘 선택에서도 엿볼 수 있다. 어머니와 딸뿐인 두 사람을 이렇게 지칭하는 것은 작가의 매우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선택으로 보이는데, 소설의 초반에 일찌감치 오티리예가 언젠가 “믿음직한 친구 eine zuverlässige Freundin” (313)가 되었으면 하는 샤를로테의 소망이 언급되기 때문이다.

오티리예는 이제 자율적 결단을 통해 칸트적인 의미에서 자유를 얻은 셈이다. 칸트에게 자유란 자신이 세운 법칙에 복종하는 힘으로, 즉 어떤 외적 조건들에 대해서도 독립적으로 자기 법칙의 필연성에 귀속하는 인간의 마음 능력이다. 또한, 윤리적 자유 곧 인격의 기반으로서의 자유는 인간이 자기으로부터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자연적 본성으로부터 벗어남, 즉 자기로부터의 해방을 원초적 의미로 갖는다.(백중현 2014, 21-26 참조) 오티리예가 참회와 결심을 통해 “저 잘못, 저 불행의 집에서도 해방되었다고 auch befreit von der Last jenes Vergehens, jenes Mißgeschicks”(502) 느꼈으며 에두아르트를 완전히 단념한다는 조건 아래 마음속 깊이 자기 자신을 용서했다는 서술자의 진술은 그녀가 자기 성찰과 자율적 결단을 통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기 마련인 본성보다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법칙을 따르는 “청명한 이성자유”를 얻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문제는 서론에서 살펴본 작가 자신의 해설처럼 이 “이성자유 왕국”을 “흐린 열정적 필연성”이 관통한다는 데에 있다. 즉 오티리예가 내린 결단의 진실성은 서술자에 의해서도 보증되나 문제는 이제 그 결단의 실천 가능성이다.

III. 2. “흐린 열정적 필연성”

두 여인은 서로 지지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사고의 충격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자 오티리예의 거취 문제를 의논한다. 오티리예는 어느 부유한 가문으로 가서 그 집안 상속녀의 말벗이 되는 길을 거절하고, 기숙학교로 되돌아가 교사로서 학생

30) 여기에서 분석 중인 대화를 시작하기 직전, 오티리예가 커다란 눈으로 “그녀의 (여자)친구 ihre Freundin”(499)를 쳐다보면서라는 대목이 나오며, 이어지는 2부 15장에서는 두 사람이 “(여자)친구들 die Freundinnen”(501)로 지칭된다. 또한, 오티리예가 자기 인생의 비밀을 “(여자)친구에게 der Freundin”(502) 털어놓았다는 표현도 있다.

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며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는 계획을 밝히는데 그런 결정의 밑바탕에는 숙명론적인 자기인식이 깔려있다. 즉 그녀는 어떤 속죄나 금욕으로도 “불길한 운명 ahndungsvollen Geschick”(504)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운명은 자기를 부드럽게 대해 주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숙명론적 사고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패배적인 무기력의 상태에 빠지지 않고 설사 불행한 운명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을지라도 즐겁게 일하며 자기 의무를 다함으로써 세상의 낙인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여긴다. “가장 가치 있는 피난처는 우리가 활동적일 수 있는 곳에서 찾아야 할 거예요. Die schätzenswerteste Freistatt ist da zu suchen, wo wir tätig sein können.”(503f.) 오틸리에는 “덜쳐오는 무시무시한 힘들 die ungeheuren zudringenden Mächte”, 즉 운명에 맞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성스러운 존재에 dem Heiligen” 자신을 바친 “귀의한 사람 eine geweihte Person”(505)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그녀의 이러한 자기규정은 마지막 장에서 그려질 그녀의 성화 聖化를 예비하는 역할을 하며, 이후의 사건 전개는 한편으로는 벗어날 길 없는 운명의 가혹함을, 다른 한편으로는 오틸리에는의 순진함을 보여준다.

샤를로테가 그렇게 여러 차례 에두아르트와의 결합 의사를 조심스럽게 타진해 보아도 단호하게 거부하던 오틸리에는 기숙학교로 가는 길에 막상 에두아르트와 우연히 마주치자 진퇴양난의 아포리아에 빠진다. 그녀는 고아가 된 자신을 정성껏 돌봐준 양어머니의 남편을 빼앗지 않겠다는 도덕적 결심과 자신에게 “지상 낙원 Himmel auf Erden”(364)을 선사해준 에두아르트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에두아르트의 성정을 생각하면 그가 어떤 방식으로든 오틸리에는에게 접근하려 할 것은 뻔한 일인데 그녀는 그런 경우까지 고려해 보지도 않고 그를 단념할 수 있다고 순진하게 믿은 것이다. 어떤 우연이나 놀라운 사건에 의해서 다시 예전 상태로 되돌아간다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의 갈등이 생길 테니 에두아르트를 다시 만나는 위험만은 피하라는 샤를로테의 경고는 마치 예언처럼 현실이 된다. 에두아르트와 헤어져서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는 오틸리에는의 계획은 단 한 번의 재회로 물거품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는 그의 청혼을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에두아르트와 함께 다시 샤를로테가 있는 성으로 되돌아온 그녀는 부부의 손을 포개어 줌으로써 자신의 도덕적 결심은 여전히 견고함을 암시한다.

그렇다면 이제 오티리에에게 남아있는 선택의 가능성은 무엇인가? 그녀는 여관에서 에두아르트와 재회한 그 순간부터 식음을 전폐하고 침묵하기 시작한다. “친구들에게 den Freunden”(514), 즉 성의 동거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의 젊음을 강조하며 자기의 내면은 자신에게 맡겨달라는 희망적인 말로 에두아르트 등을 속인 오티리에에 실제로는 어린 하녀 나니의 도움을 받아 아무도 모르게 계속 단식을 해나간다. 이런 그녀의 행동을 보면 그녀가 편지에서 한 말 중 그녀의 본심은 도입부에 있는 다음의 고백이다. “나는 나의 궤도에서 이탈했고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가서도 안 돼요. 나를 지배하게 된 적대적인 데몬이 밖에서 나를 방해하는 것 같아요. 설사 내가 나 자신과 다시 화해했다 하더라도 말이예요.”³¹⁾ 여기에서 오티리에가 말하는 “적대적인 데몬”은 한편으로는 자신의 길들일 수 없는 정열을 외부로 투사해서 대상화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Vgl. Kim 2007, 92)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어찌지 못하는 운명적인 힘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노년의 괴테는 자서전 『시와 진실』에서 ‘데몬적인 것’을 비록 도덕적 세계 질서에 직접 대립하는 힘은 아니라 해도 그 질서를 방해하는 힘이라고 정의하는 데³²⁾ 이러한 설명은 오티리에의 말과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제시해 준다. 오티리에에 에두아르트와의 결합이라는 행복을 단념하겠다는 도덕적 결심으로 자신을 용서하고 자신과 화해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의 숙명적인 재회는 그러한 도덕적 결심을 무력화시키는데, 그녀는 자신이 이러한 운명을 피할 수 없음을 절망적으로 인식한 것이다. 자신의 도덕적 결단으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과 결합할 수도 없지만, 그에 대한 사랑에서 벗어날 수도 없는 그녀는 아사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사랑하는 삶을 선택한다. 그리고 오티리에와 에두아르트의 사랑은 위

31) “Ich bin aus meiner Bahn geschritten und ich soll nicht wieder hinein. Ein feindseliger Dämon, der Macht über mich gewonnen, scheint mich von außen zu hindern, hätte ich mich auch mit mir selbst wieder zur Einigkeit gefunden.”(514)

32) 데몬은 우리말로로는 ‘재앙을 주는 신’을 뜻하는 ‘마신 魔神’ 또는 ‘사람을 속이거나 현혹하는 악마와 같은 성질’을 의미하는 ‘마성 魔性’으로 번역할 수 있으나 『시와 진실』에서 괴테가 설명하는 내용과는 완전히 부합하지 않고 또 ‘다이몬 Daimon δαίμων’이라는 어원도 살릴 수가 없어 그냥 데몬으로 표기한다. 괴테는 『시와 진실』에서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데몬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부정적으로 설명한다. 즉 데몬은 신적이지도 않고 인간적이지도 않으며 악마적이지도 않고 천사 같지도 않은 것이며, 우연과 비슷하기도 하고 섭리와 비슷하기도 하며 존재들 사이로 들어가 떼어놓거나 맺어주는 듯 보이는 존재라는 것이다.(Vgl. FA 14, 839-841)

에서(II.1) 살펴본 물질 간의 선택친화성과 같이 필연적인 것으로 묘사된다.

그녀[오티리에]도 이러한 **지복의 필연성**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예나 지금이나 그들은 형용할 수 없는, 거의 **마법적인 인력**을 서로에게 발산하고 있었다. [...] 그들이 같은 흠에 있으면 오래지 않아 그들은 나란히 서 있거나 앉아 있었다. [...] 어떤 시선, 어떤 말, 어떤 동작, 어떤 접촉도 필요치 않았다. 필요한 것은 오로지 순수하게 함께 있는 것이었다. 그러면 그들은 두 사람이 아니라, 자신과 세계에 만족한, 무의식적이고 완전한 만족감 속에 있는 **단 하나의 인간**이었다. 그렇다, **둘 중 하나**를 그 집의 한쪽 끝에 붙잡아 놓았다면, **다른 하나**가 서서히 저절로, 작정하지 않고도, 상대를 향해 움직여 갔을 것이다.³³⁾ [강조 필자]

위의 인용문을 보면, 두 사람의 사랑은 마치 자석의 양극이 서로 다른 극을 끌어당기는 것과 같은 자연필연성의 현상으로 그려진다. II.1에서 분석한 것처럼 작가는 둘의 첫 포옹을 묘사할 때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의도적으로 중성 정관사틀(*das andere*) 써서 사랑에 빠진 두 남녀를 서로 강력한 친화성을 지닌 두 물질처럼 묘사하고 있다. 사랑하는 연인들은 무릇 서로에게 다정한 시선과 사랑의 속삭임, 애무의 손길이나 입맞춤을 원하지만, 이 둘은 오로지 함께 있기만 하면 된다는 점도 둘 사이의 거의 물질적인 친화성을 강조한다. 오티리에와 에두아르트 두 사람이 “무의식적이고 완전한 만족감 속에 있는 단 하나의 인간”이었다는 서술자의 설명은 플라톤의 『향연』에 등장하는 에로스의 근원, 성별의 발생에 관한 이야기를 연상시킨다.(Vgl. Wiethölter 2006, 996) 이런 식으로 서술자는 두 사람의 사랑을 인간이 의지로 피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처럼 필연적인 것으로 묘사함으로써 오티리에가 이 사랑을 거부하지 못하는 것에 나름의 정당성을 부여한다. 그리고 그림으로써 그녀가 도덕성과 감각성, 도덕적 결단과 숙명적 사랑

33) “auch sie konnte sich dieser **seligen Notwendigkeit** nicht entziehen. Nach wie vor übten sie eine unbeschreibliche, fast **magische Anziehungskraft** gegeneinander aus. [...] Fanden sie sich in Einem Saale, so dauerte es nicht lange, und sie standen, sie saßen nebeneinander. [...] nicht eines Blickes, nicht eines Wortes, keiner Gebärde, keiner Berührung bedurfte es, nur des reinen Zusammenseins. Dann waren es nicht zwei Menschen, es war **nur Ein Mensch** im bewußtlosen, vollkommenen Behagen, mit sich selbst zufrieden und mit der Welt. Ja, hätte man **eins von beiden** am letzten Ende der Wohnung festgehalten, **das andere** hätte sich nach und nach von selbst, ohne Vorsatz, zu ihm hinbewegt.”(516)

사이에서 처한 아포리아 역시 첨예화된다. 이 해결할 수 없는 난제 앞에서 오틀리에는 단식으로 서서히 자신의 감각적 육체를 소멸시킴으로써 살아있는 한 에두아르트를 사랑하는 한편, 절대로 그의 여자가 되지 않겠다는 자신의 결심을 지킨다.

기숙학교의 여교장이 샤를로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특별히 언급할 정도로 원래부터 “먹고 마시는 것을 매우 절제하는 것 *große Mäßigkeit im Essen und Trinken*”(293)이 오틀리에의 습관이었다는 점은 그녀의 단식이 윤리적인 자기강제라기보다 자신의 본능 또는 충동을 따르는 행위일 뿐이라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위에서 분석한 것처럼 자율적인 도덕적 판단이 선행하지 않는다면 주변의 당사자들 모두가 원하는 두 사람의 결합을 유독 그녀만이 거부하고 죽음의 길을 갈 이유가 없다. 그리고 서술자가 슬쩍 언급하는 것처럼 절제가 몸에 밴 그녀에게도 단식은 몇 시간씩 “극도로 허약한 상태로 *in großer Schwachheit*”(519) 보내야 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다.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문제는 오틀리에의 성화 聖化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하는 질문이다. 여러 연구자들이 지적한 것처럼, 소설의 결말에 오틀리에가 성녀로 묘사되는 것은 진지한 의도에서 행해진 진정한 신격화 또는 변용이라기보다는 미묘한 아이러니가 깔려있는 양식화로 보아야 할 것이다.(Vgl. Kim 2007, 94f.; Schings 2011, 340; 임홍배 2014, 258-9) 즉 괴테는 여기에서 주인 아씨의 식사를 대신 먹어치워 그녀를 죽게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순박한 나니와 어떻게 해서든 자식을 살리고 싶은 절박한 어머니들을 통해 “어떻게 성담 聖譚이 생겨나는지 *wie eine Legende entsteht*”(HA 6, 741)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죽은 여주인의 장례행렬을 보고 그녀가 자신에게 손짓하는 것 같은 환상에 사로잡혀 다락방에서 떨어진 나니는 “사지가 다 으스러진 것처럼 보였다 *es schien an allen Gliedern zerschmetert*”(524)고 묘사되지만, 이 진술은 일단 “보였다”는 동사로 인해 그 사실성에 일정한 제약이 부여된다. 또한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보아도 마을에 있는 나니의 집은 당시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단층으로 된 소박한 농가일 것으로 짐작되며, 몸이 가벼운 소녀가 단층집의 지붕 밑 다락방 높이에서 떨어진다고 해도 치명상을 입지 않을 수도 있다. 오틀리에의 시신에 몸이 닿자마자 벌떡 일어난 나니는 장례행렬의 사람들을 “증인 *Zeugen*”(524)이라 부르며 자신의 여주인이 일어나 자신에게 용서의 말

을 하고 축복하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지 않았냐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나니의 말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며 죄책감에서 비롯된 환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오티리애가 안치된 예배당에 병자들이 몰려들게 되는 상황을 설명하는 단락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된다. “실제로 만족될 수 없는 모든 욕구는 믿음을 강요한다. Jedes Bedürfnis dessen wirkliche Befriedigung versagt ist, nötigt zum Glauben.”(527) 이어서 자식이 치유되기를 바라고 몰래 아이들을 데려온 어머니들은 “갑작스러운 차도를 느낀다고 믿었다 glaubten eine plötzliche Besserung zu spüren”(527)고 서술된다. 즉 이 대목은 죽은 오티리애가 성녀로서 치유의 기적을 행한다는 서술이 아니라 어떻게 치유를 향한 욕구가 믿음 나아가 신앙을 만들어 내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의 출발점으로 돌아가 보자. 책광고문에서 괴테가 “열정적 필연성의 흔적들”을 지울 수 있는 심급으로서 제시한 “더 높은 손”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만일 이 책을 읽는 독자가 오티리애의 성화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더 높은 손”은 소설 결말의 ‘성화’를 상기시키며 종교적 심급으로서 기독교의 신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대목을 아이러니가 깔려있는 양식화로 보는 필자의 입장에서 이 “손”은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운명 또는 어떤 초월적 섭리로 보인다. III.1.에서 오티리애가 자율적인 도덕적 판단을 통해 “이성자유”를 얻게 된다는 점을 논증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녀는 이 소설에서 자연필연성의 한 현상처럼 묘사되는 열정적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다. 자연의 일부인 인간으로서 생명이 있는 한, 이 “열정적 필연성”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그녀는 결국 단식에서 출구를 찾는다. 그녀의 죽음은 한편으로는 자신의 결심을 지키는 행위이지만 그것이 엄숙한 도덕의 승리로 보이지 않는 것은 그녀가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했으며 죽음 이후에도 그 사랑이 계속될 것이라는 희망으로 작품이 끝나기 때문이다. “살아있겠다고 내게 약속해 줘요! Versprich mir zu leben!”(522)라는 오티리애의 유언과 달리 에두아르트는 “모방할 수 없는 것 das Unnachahmliche”(528)을 모방하여 오티리애를 뒤따르는데 소설의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문장에서 우리는 두 주인공을 바라보는 작가의 다정한 시선과 죽음을 초월한 영원한 사랑에 대한 동경을 읽을 수 있다.³⁴⁾ “그리고 그들이 언젠

34) 필자 역시 앞에서 언급한 연구자들처럼 결말 부분의 아이러니에 주목해야 한다고 보지만 그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단락이 환기하는 따뜻하고 희망적인 정서를 완전히 부인하기는 어

가 다시 함께 깨어난다면, 그 얼마나 정겨운 순간이 될 것인가.”³⁵⁾

IV. 나가며

자유와 필연성의 대립이 소설 『친화력(선택친화성)』의 핵심 주제 중 하나라는 점은 이미 제목에서부터 암시된다. 당대에 통용되던 화학 용어인 ‘선택친화성’이 일개 무기물에 마치 선택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의인화하는 인간적 비유임을 일찍이 간파한 괴테는 이 개념을 소설의 주요 모티브로 도입해서 남녀 간의 사랑을 묘사하고 설명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소설을 출간하기 직전, 직접 쓴 책광고문에서 작가는 제목으로 삼은 선택친화성이라는 개념을 “이성자유”와 “열정적 필연성”이라는 표현으로 풀어쓰면서 도처에 오직 하나의 자연만이 있으며 필연성의 흔적이 자유의 왕국을 관통한다고 말하는데, 그 의미는 인간이 동물성과 이성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지닌 ‘이성적 동물’이라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작가 자신의 이러한 해설을 출발점으로 삼아 본고에서는 소설 『친화력』에 드러나는 필연성과 자유의 관계를 이 양자의 긴장관계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인물인 오틀리예를 중심으로 해명해 보았다.

이 작품에서 남녀 간의 사랑은 화학 원소들이 친화성에 따라 결합하고 분리되는 것처럼, 강력한 인력의 작용, 즉 자연필연성의 현상으로 묘사된다. 네 남녀 주인공이 모두 선택친화성이라는 “열정적 필연성”의 지배를 받지만 오틀리예는 특히 자연의 힘에 대한 독특한 감수성, 즉 무기물에 대한 반응성을 보여준다. 석탄 매장지 근처에서 느끼는 전율과 두통, 진자실험에서 보이는 격렬한 반응, 멀리 떨어져 있는 연인에 대한 텔레파시 등 오틀리예의 예사롭지 않은 면모는 당대에 유행했던 동물자기설 또는 메스머리즘의 맥락에서 형상화된 것이며 그녀가 아주

롭다. 특히 문체적 인물로 그려지는 에두아르트의 그 모든 약점과 부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연인을 사랑하는 데에 있어 한계를 모르는 그와 사랑을 지키는 방식으로 죽음을 택한 오틀리예의 낭만적 사랑이 내세에서라도 이루어질 것 같은 희망을 환기하는 마지막 문장은 깊은 여운을 남긴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서술자가 매우 따뜻한 마음으로, 어느 정도 동정의 시선을 담아 두 연인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김용민 2019, 167)는 데에 필자도 동의한다.

35) “und welch ein freundlicher Augenblick wird es sein, wenn sie dereinst wieder zusammen erwachen.”(529)

특별한 자연필연성의 지배 아래 있다는 점을 뚜렷이 보여준다. 그리고 그녀는 에두아르트에 대한 열정적 사랑과 감각적 욕망, 즉 자연필연성으로 인해 과실치사의 죄를 짓게 되지만 이를 계기로 자신의 “쾌도” 이탈을 깨닫고 도덕성을 지키기 위해 열정적 사랑을 단념한다. 그녀가 자기 성찰을 통해 으레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기 마련인 인간의 본성을 버리고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법칙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청명한 이성자유”의 순간을 목격하게 된다. 선택친화성에 대한 대화에서 샤를로테가 말하듯 “하지만 인간이란 그런 원소보다는 몇 단계나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다.”³⁶⁾ 에두아르트와의 결합을 단념한 오틀리에는 숙명론적인 자기인식을 바탕으로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천명하지만, 사랑하는 연인과의 재회는 단번에 이러한 결심을 무력화시킨다. 그리고 다시 만난 두 연인은 자석의 양극이 서로 끌어당기듯, 친화성을 띤 원소들이 서로 결합하듯 그렇게 선택친화성이라는 필연성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로 묘사된다. 이렇게 도덕성과 감각성, 도덕적 결단과 숙명적 사랑 사이에서 헤어날 수 없는 아포리아에 빠진 오틀리에는 결국 단식으로 자신의 감각성을 서서히 소멸시킴으로써 살아있는 한 에두아르트를 사랑하는 동시에 자신의 결심을 지킨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괴테의 장편소설 『친화력(선택친화성)』에는 자유와 필연성의 관계라는 철학적 주제와 18세기 화학 개념, 낭만주의 자연철학에서 주목했던 동물자기설과 메스머리즘 등 1800년 경의 다양한 담론들이 녹아있다. 본고에서는 작가 자신이 책광고문에서 제시했던 “이성자유”와 “열정적 필연성”의 관계가 작품에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를 구체적인 텍스트 분석을 통해 확인했다. 자유와 필연성을 인간의 조건으로 본다는 점에서 필자는 괴테와 칸트의 입장이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이해했지만 결국 숙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존재를 그리고 있는 이 소설의 결말은 시인으로서의 괴테 고유의 태도를 보여준다 하겠다. 자유와 필연성의 관계는 스피노자에서 라이프니츠를 거쳐 칸트로 이어지는 근대철학의 맥락에서도 중요한 주제이며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 세 명의 철학자들이 모두 괴테에게 영향을 준 만큼,³⁷⁾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철학 담론과 문학적 형상화의 양상을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존에 낭만주의 비판의 의도로 형상화되었다고 해석된 요

36) “Aber der Mensch ist doch um so manche Stufe über jene Elemente erhöht”(305).

37) 괴테와 스피노자, 라이프니츠의 영향 관계에 대해서는 (안삼환 2001 참조).

소들이 반드시 일방적인 비판인가 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고전주의에서 낭만주의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시기에 집필된 이 작품에서 이 두 사조가 서로 어떻게 얽혀있는지를 밝히는 것도 후속 과제로 남겨둔다.

참고문헌

1차문헌

- 괴테, 요한 볼프강(2009): 시와 진실(전영애, 최민숙 역). 민음사.
- 괴테, 요한 볼프강(2011): 친화력(오순희 역).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칸트, 임마누엘(2009): 실천이성비판(백종현 역). 아카넷.
- Goethe, Johann Wolfgang(1986): Dichtung und Wahrheit. In: Sämtliche Werke. Briefe, Tagebücher und Gespräche. Bd. 14. Hrsg. von Klaus-Detlef Müller. Frankfurt a. M. (FA 14 = Frankfurter Ausgabe Bd. 14)
- Goethe, Johann Wolfgang(1989): Vorträge, über die drei ersten Kapitel des Entwurfs einer allgemeinen Einleitung in die vergleichende Anatomie, ausgehend von der Osteologie. In: Sämtliche Werke nach Epochen seines Schaffens. Bd. 12. Hrsg. von Hans J. Becker, Gerhard H. Müller u. a. München. (MA 12 = Münchner Ausgabe Bd. 12)
- Goethe, Johann Wolfgang(1994): Die Wahlverwandtschaften. In: Sämtliche Werke. Briefe, Tagebücher und Gespräche. Bd. 8. Hrsg. von Waltraud Wiethölter. Frankfurt a. M. (FA 8 = Frankfurter Ausgabe Bd. 8)
- Goethe, Johann Wolfgang(1996): Die Wahlverwandtschaften. In: Werke. Bd. 6. Textkritisch durchgesehen von Erich Trunz. Kommentiert von Erich Trunz und Benno von Wiese. München. (HA 6 = Hamburger Ausgabe Bd. 6)
- Kant, Immanuel(2003): Kritik der praktischen Vernunft. Hrsg. v. H. D. Brandt und H. F. Klemme(Philosophische Bibliothek 506). Hamburg.

2차 문헌

- 김용민(2019): 생태주의자 괴테. 근대의 길목에서 근대를 성찰하다. 문학동네.
- 백종현(2014): 칸트에서 선의지와 자유의 문제. 인문논총 제71권 제2호, 11-42.

- 벤야민, 발터(2012): 괴테의 친화력(최성만 역). 도서출판 길.
- 안삼환(2001): 괴테의 문학에 비친 스피노자와 라이프니츠의 사상. 괴테연구 13 권. 155-176.
- 안삼환(2009): 괴테의 소설 『선호친화성』에 나타난 서술기법적 특징들. 독일문학 제 111집, 5-26.
- 오순희(2011): ‘낭만적 사랑’을 둘러싼 담론들. 『친화력』의 현대성에 대하여. 실린 곳: 요한 볼프강 괴테: 친화력(오순희 역).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370-393.
- 임홍배(2014): 괴테가 탐사한 근대. 슈투름 운트 드랑에서 세계문학론까지. 창비.
- Barkhoff, Jürgen(1998): Tag- und Nachtseiten des animalischen Magnetismus. Zur Polarität von Wissenschaft und Dichtung bei Goethe. In: Peter Matussek(Hg.): Goethe und die Verzeitlichung der Natur. München, 75-100.
- Benjamin, Walter(1991): Goethes Wahlverwandtschaften. In: W. Benjamin: Gesammelte Schriften, Bd. I.1. Frankfurt a. M., 123-201.
- Boa, Elizabeth(2002): Die Geschichte der O oder die (Ohn-)Macht der Frauen. „Die Wahlverwandtschaften“ im Kontext des Geschlechterdiskurses um 1800. In: Goethe-Jahrbuch 118, 217-233.
- Buschendorf, Bernhard(1986): Goethes mythische Denkform zur Ikonographie der „Wahlverwandtschaften“. Frankfurt a. M.
- Cho, Seonghee(2015): Verletzte Seelen. Psychische Traumata in Goethes Romanen „Wilhelm Meisters Lehrjahre“ und „Die Wahlverwandtschaften“. Würzburg.
- Kim, Hee-ju(2007): Otilie muß sterben. Zum ‚Ungleichnis‘ zwischen chemischer und menschlicher Natur in Goethes Roman „Die Wahlverwandtschaften“. In: Goethe-Jahrbuch 124, 85-95.
- Michelsen, Peter(1996): Wie frei ist der Mensch? Über Notwendigkeit und Freiheit in Goethes „Wahlverwandtschaften“. In: Goethe-Jahrbuch 113, 139-160.
- Nolan, Erika(1982): Das wahre Kind der Natur? Zur Gestalt der Otilie in Goethes Roman ‚Die Wahlverwandtschaften‘. In: Jahrbuch des freien deutschen Hochstifts, 82-96.
- Pörksen, Uwe(2015): Goethe als in sich selbst versunkene mythische Natur? *Die Wahlverwandtschaften* sind ein Experiment vielseitiger Aufklärung. In:

Benjamins Wahlverwandtschaften, 342-355.

- Sandkaulen, Birgit(2010): „... überall nur eine Natur ...“. Spinozas *Ethik* als Schlüssel zu Goethes *Wahlverwandtschaften*? In: Helmut Hühn(Hg.): Goethes „Wahlverwandtschaften“. Werk und Forschung. Berlin, 177-192.
- Schings, Hans Jürgen(2011): Zustimmung zur Welt. Goethe-Studien. Würzburg.
- Wiethölter, Waltraud(2006): Kommentar. Zur Deutung. FA. Bd. 11., 984-1017.
- „wahlverwandtschaft“, in: Deutsches Wörterbuch von Jacob Grimm und Wilhelm Grimm, Erstbearbeitung (1854 - 1960), digitalisierte Version im Digitalen Wörterbuch der deutschen Sprache, <<https://www.dwds.de/wb/dwb/wahlverwandtschaft>>, abgerufen am 07.08.2021.

Zusammenfassung

Die *Conditio Humana* in Goethes „Die Wahlverwandtschaften“

- Das Spannungsverhältnis zwischen „Vernunftfreiheit“
und „leidenschaftlicher Notwendigkeit“

Cho, Seonghee (Seoul National Uni)

Goethe verwendet für den Titel seines Romans den Begriff ‚Wahlverwandtschaft‘, einen gebräuchlichen Terminus aus der Chemie, den er in einer Selbstanzeige für sein Buch auch als „Vernunftfreiheit“ und „leidenschaftliche Notwendigkeit“ paraphrasiert. Damit betont er die doppelte Bedingtheit des Menschen: Sittlichkeit und Sinnlichkeit, Pflicht und Neigung. Ausgehend von der eigenen Erläuterung des Autors geht die vorliegende Arbeit auf die Beziehung zwischen Freiheit und Notwendigkeit im Roman „Die Wahlverwandtschaften“ ein und konzentriert sich dabei auf die Figur Otilie, bei der sich das Spannungsverhältnis zwischen den beiden Konzepten am offensichtlichsten zeigt. Im Roman wird die Liebe zwischen Mann und Frau als

starke Anziehung, also als ein Phänomen der Naturnotwendigkeit beschrieben, so wie sich chemische Elemente entsprechend ihrer Verwandtschaft verbinden und trennen. Otilie ist besonders ungewöhnlich in ihrer einzigartigen Anfälligkeit für die Naturkraft, etwa in ihrer Empfindlichkeit gegenüber unbelebten Stoffen wie Kohle und ihrer telepathischen Verbindung mit ihrem weit entfernten Liebhaber. Dies wird im Kontext des damals populären ‚animalischen Magnetismus‘ bzw. Mesmerismus thematisiert und zeigt deutlich, dass sie unter der Herrschaft einer ganz besonderen Naturnotwendigkeit steht. Wegen ihrer leidenschaftlichen Liebe und sinnlichen Begierde zu Eduard, also wegen der Naturnotwendigkeit begeht sie die Sünde der fahrlässigen Tötung, wodurch sie aber den Austritt aus ihrer „Bahn“ erkennt und daraufhin ihrer leidenschaftlichen Liebe entsagt, um ihre Sittlichkeit nicht zu gefährden. Wir beobachten den Moment der „heiteren Vernunftfreiheit“, als sie durch Selbstreflexion die menschliche Natur, das Streben nach dem eigenen Glück, aufgibt und sich autonom entschließt, dem „Gesetz“ zu folgen, das sie selbst für richtig hält. Demzufolge entsagt Otilie ihrer Verbindung mit Eduard und erklärt, dass sie auf Grund einer fatalistischen Selbsterkenntnis ein Leben im selbstlosen Dienst führen wird, aber das Wiedersehen mit ihrem Geliebten setzt diesen Entschluss sofort außer Kraft, und sie kann sich nicht der „trüben leidenschaftlichen Notwendigkeit“ entziehen. Auf diese Weise gerät Otilie in eine Aporie von Sittlichkeit und Sinnlichkeit, moralischem Entschluss und schicksalhafter Liebe, der sie nicht entkommen kann. Solange sie lebt, liebt sie Eduard und gleichzeitig hält an ihrem Vorsatz fest, indem sie schließlich durch das Fasten allmählich ihre Sinnlichkeit vernichtet.

Schlüsselbegriffe: Goethe, Wahlverwandtschaften, *Conditio humana*, Freiheit,
Notwendigkeit, Mesmerismus

필자 E-Mail: lotus1@snu.ac.kr 교수

투고일: 2021. 10. 31. / 심사일: 2021. 11. 23. / 게재확정일: 2021. 12. 4.